

<83년 개인전 서문>

공예예찬(工藝禮讚)－유리지 금속작품전

기하학적 형태의 발견은 인류가 불을 발견한 만큼이나 위대한 것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하학적 형태가 인간의 모든 생활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기하학적 형태의 그 미적 특성을 인정하기에 이르른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일 것입니다.

일찌기 많은 미학자들과 논리학자들이 자연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수학적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추상적이고 기하학적 형태가 우리의 인간환경과 도구에 효율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선구적인 예술가들의 탐구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추상적이고 기하학적 형태는 디자인 운동에 있어서는 탈장식운동으로부터, 미술운동에 있어서는 추상미술의 모험으로부터 비롯된, 다시 말해서 위대한 모더니즘 정신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날 세계의 보편적인 조형 관용어로 통용되는 형상성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인 조형 관용어로 구성되는 형태의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인습적인 미적 감수성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면이 있습니다.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이며, 정확한 형태의 속성에 대해서는 배타하는 심성이 없지 않으며, 대중 대중의 형태가 갖는 부정형적 형태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고 여유와 은근함 나아가 자연주의적인 아름다움으로 미화하는 심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상과 환경의 변화를 인정한다면 오늘날의 보편적 형태를 더욱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그것의 미적 특성과의 만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이며, 정확한 형태의 속성에 대해서는 배타하는 심성이 없지 않으며, 대중 대중의 형태가 갖는 부정형적 형태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고 여유와 은근함 나아가 자연주의적인 아름다움으로 미화하는 심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상과 환경의 변화를 인정한다면 오늘날의 보편적 형태를 더욱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그것의 미적 특성과의 만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유리지씨 작품에서 느끼는 점도 바로 이러한 미적 특성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그녀의 작품을 처음 보았던 때가 1977년 귀국작품전에서였는데 그때까지의 나의 경험으로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기술적 완벽함과 모더니즘의 미학이 갖는 순수한 형태였던 것입니다. 이번 전람회의 그녀의 작품을 작업실에서 보았을 때 느끼는 더욱 정확한 공예기술과 간결하고, 깨끗하며 그리고 우아한 추상미에 공예예찬이라는 말을 생각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나의 느낌에 대해서 개인적인 기호라고 일축해 버려도 그 뿐이긴 하지만 공예에 있어서 완벽한 공예기술로 성취되는 정교함, 깨끗함, 간결우미한 형태의 공예를 적극 예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예가 자신이 오늘날의 사회의 모든 일상 생활용품에 모두 책임을 지기에는 사회가 너무 다변화했지만, 이러한 사회에 쏟아져 있는 믿을 수 없는 재료로써 믿을 수 있는 형태를 창조해야 하는 공예가의 역할에 비추어 본다면 그 믿을 수 있는 형태란 바로 완벽한 공예기술을 통해서 건강하고 건전한 형태를 사회에 동화시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일이 오늘날의 공예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의 미의식 가운데에서 결여되어 있는 부분을 극복하는 일이 오늘날 사회의 조형적 형태에 책임을 져야 할 공예가 및 디자이너들의 업무 가운데 하나임을 박제가 선생(1750~?)의 글을 인용

함으로써 공예가, 디자이너, 그리고 일방적인 우리 전통공예 예찬론자와 함께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 공장이 명성이 나면 궁중과 관아에서 무상으로 납상을 강요하기 때문에 범백의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고.....따라서 명공은 은신하게 되었다.....

-- 중국과 일본의 일용품은 경제적, 합리적인 점 때문에 일용품은 규격화되어 있었다

-- 공(工)이 粗하니 배워서 민(民)이 粗하고, 그릇이 粗하니 마음이 粗하게 되고, 결국 粗製濫造가 국민습속이 되었다.”

사실 우리의 전통공예 예찬 가운데서 자주 등장하는 자연스럽고, 소박하고, 은은한 아름다움, 등등의 수식어로 집약되는 우리의 공예의 이면에는 박제가의 지적대로 공예기술이 완벽하지 못했고 정교, 정확성이 결여된 점이 없지 않았으며 이러한 것이 대충 대충의 의식을 낳게 하지 않았나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유리지씨 공예작품을 보고 공예예찬이란 제목을 부치는 이유도 우리의 전통공예에서 부족한 점을 극복하고 더욱 정확, 정교의 미적특성을 예찬하자는 뜻에서입니다. 그녀의 공예작품에서 보이는 공예기술, 정교한 우미, 기하학적이고 간결한 형태의 추상화 등이 조화하여 오늘날 우리의 감수성에 잘 어울리는 조형미를 성취하고 있어 우리의 현대공예 가운데서 보기 드문 수작들을 내 놓았다고 예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83년 8월 10일

정시화(鄭時和), 국민대학교 조형대 교수